

광 고

# 원양산업

제 1160 호  
(2023년 8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 Contents



### 협회소식

-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 참석 / 4
- 제101차 IATTC 연례회의 개최 / 5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3년 7월 보고 내용 / 6
- 요리 만들기 / 13
- 콩치김밥 / 13



###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4
- 8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 14
- 참치어업 동향 / 15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20 달러 / 15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920 달러 / 15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799 엔 / 16
- 중서부태평양 6월 전제량, 약 6만톤으로 급증 / 16

- 중서부태평양 '22년 선망 참치 어획량 270만톤 / 17
- 동부태평양 '22년 선망 가다랑어 어획량 약 29만톤 / 18
- 동부태평양 '22년 황다랑어 어획량, 15% 증가 / 19
- 日, 6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0
- 日, 2인 이상 가구 참치 지출액·구입량 통계 발표 / 21
- IOTC, 세이셸·中 황다랑어 어획 한도 추가 할당 / 22
- 태국 '23년 상반기 냉동 참치류 수입 14% 감소 / 23
- 태평양 국가, 미국과 경제 지원 협정 체결 / 23
- EU-인도, 어업 분야 협력 강화 / 24
- 美-대만, 지속가능 어업 관련 협의 체결 / 24
- 호주 정부, 美 기업과 IUU 방지 목적 제휴 체결 / 25
- 가봉, WTO 수산보조금협정 동참 / 25
- 2023년 동부태평양 선망선 수용량, 약 30만톤 / 26
- 중서부태평양 '22년 선망어업 경제지수, 8년만의 최저치/ 27
- 2023년 美 단일관세 쿼터 10% 감소 / 28
- 美 정부, 수입 양철 관세 300% 방안 검토 중 / 28
- EU 참치 통조림 업계, 올리브유 가격 급등 직면 / 29
- TUNACONS,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MSC 인증 획득/ 29
- 수산물 오메가-3, 청력 및 폐 건강 유지 효과 / 30
- 미쓰비시, Princes 그룹 매각 중단 / 30

## Contents

### ■ 오징어어업 동향

- FAO “2021년 대왕오징어 어획량 100만 4,278톤” / 31
- 中 남미 오징어 6월 하순 가격, 고가 추세 지속 / 31
- 中 7월 소형 일렉스오징어 가격 하락세 / 32
- 아르헨티나 5월 일렉스 수출량 급감 / 33
- 아르헨티나 6월 수산물 수출 감소 / 33

### ■ 명태어업 동향

- 日 마루하 니치로, 22/23 매출 1조 엔 돌파 / 34
- 러, 어업 개선 장려 위하여 세금 변경, 자금 지원 활용/ 35
- 러 정부, 명태 등 자원세 공제 / 35
- 러, 어류 수출 전년 수준 유지 / 36
- 알래스카 명태 업계, 中 맥도날드 MSC 인증 환영 / 36
- 러, 中·아프리카로 수산물 수출 증대 노력 / 37
- 러 명태 공급업체, 국내 소비 촉진 브랜드 캠페인 시작/ 37
- 러, 청어 가격 급락 / 38
- 러, 허가 수령자 규제 기관에 대해 불만 제기 가능/ 38

### ■ 공치어업 동향

- 日 “가을 공치 어업, 공해 중심 어장 형성” 전망 / 39
- 日 냉동 공치 2022년 수입량 7,400톤 / 40
- 연해주, 8월 중순 공치 조업 예정 / 40
- 2023년 러 원양 어류 전망 / 41

### ■ 각국 수산 동향

- FMI “수산물, 美 소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 / 42
- 中 당국, 日 오염수 수입 규제 강화 시사 / 42
- Europeche, 국제 해운 운배출량 제로 기준 재고 요구/ 43
- EU-모로코 어업 협정 만료 / 43
- 러 업계, 선박 건조 능력 부족 우려 / 44
- 러, ‘비우호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 44
- 최신 연구 “일부 국가가 대부분의 전재 담당” / 45
- MSC “북동 대서양 온난화가 주요 어족 자원에 악영향” / 45
- 日, 2022년도 식량자급률 발표 / 46
- 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위험성 평가 / 46

### ■ 쉬어가는 난 (시)

- 〈바다〉 - 임영석 / 47

### ■ 국내 수산 정보

- 7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8
- 7월 명태 국내 동향 / 50
- IMO,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역량 강화 사업협정 체결/ 52

##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 참석 과학적 사실 확인 및 영향, 대응 방안 모색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8일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으로 개최한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부산시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윤명길 협회장과 부산지부장이 참석하였다.

토론자로는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이용희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에 퍼져있는 오염수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들이 주로 다뤄졌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낸다는 내용이 퍼져

있으나 사실은 미국이 가장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 세습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우리 정부의 안전분석 시스템, ALPS 설비 관련 해설 등에 관해서도 논의되었다.

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수산업계인데 그 외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켜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 섭취의 효용성과 건강에 기여하는 측면의 연구와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으로 수산물 내수진작과 수출 확대가 필요하고, 방류시 일시적 경색이 발생할 것이니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부비축 확대 등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협회장은 또한 오늘의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실 위에서 힘을 합쳐 체계적인 노력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제101차 IATTC 연례회의 개최

### FAD·상어 등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논의 外



제101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미국, EU, 에콰도르, 콜롬비아, 일본, 중국 등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NGO 등의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심수빈 사무관, 대해수산 박정수 부장, 협회 백상진 주임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자문위원회(SAC)가 승인한 FAD 작업반 권고에 따라 FAD 조치가 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비영김 FAD만을 사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생분해성 설계를 적용하여 2030년부터 완

전한 생분해성 FAD 사용을 검토하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상어 보존관리조치 또한 개정되어 상어 피닝금지, 상어 지느러미 자연부착 요구, 대안조치(상어 몸통과 지느러미를 동일한 가방에 보관, 밧줄 또는 와이어를 사용하여 지느러미와 몸통을 묶거나, 검색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숫자로 태깅) 적용 가능 등의 내용이 채택되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재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연례회의 회의 장소는 파나마로 협의되었다.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7월)

###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 가. 다카르항 무역·운송업체 파업

- 무역업자, 화물 운송업자 및 컨테이너 운송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다카르항에서 7월 13일부터 파업을 결정하였다.

- 해당 단체는 승인되지 않은 청구 항목 제거, 과도한 청구서 삭제, 선박 도착 72시간 전 청구서 제공, 항구의 혼잡 해소 등 11가지 사항을 요구하였고, 이 내용이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파업할 계획이다.

####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유로/톤)	유종	조사일
다카르	690	경유	'23.6.26

####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가다랑어	3.4kg~	2,075
	1.8~3.4kg	2,075
	1.5~1.8kg	1,875
황다랑어	10kg~	2,225
	3.4~10kg	2,125
	1.8~3.4kg	2,025
눈다랑어	10kg~	2,075
	3.4~10kg	2,075
	1.8~3.4kg	2,025

###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 가. 사우디, 피지 무상 원조 발표

- 지난 7월 19일 피지를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Sitiveni Rabuka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피지 개발을 위해 3,400만 달러 이상의 무상 원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Sitiveni Rabuka 총리는 피지 지역사회의 생활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발이니셔티브에서 피지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을 인정했으며 또한 사우디 측이 최근 자연 재해 이후 재건 및 구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피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 피지 투자 및 지원 약속

- 후미히로 일본 대사는 레노라 케레케레타부아 피지의 무치관보와 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축, 무역, 관광 및 투자 발전을 위한 피지의 노력에 대한 확고한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인프라 개발, 보건 및 교육, 기후 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측은 내년 일본에서 열릴 태평양제도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협력에 합의 초점을 맞췄다.

#### 다. 18개 태평양도서국 경제장관 회의, 8.9 개최

- 18개 태평양 도서국 경제장관 및 대표단이 8월 9일 열리는 회의를 위해 수바에 모였다.
- 경제장관회의 의장은 태평양도서국 포럼 의장이자 쿡제도의 총리인 Mark Brown이 맡았다.





- 이들은 모든 태평양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개발 모델에 초점을 맞췄고, 또한 COVID-19 대유행, 기후 변화 및 지정학의 영향을 계속 다룰 예정이며, 아울러 2050 블루 퍼시픽 전략의 비전을 이행하는 데 지침이 될 경제 개혁 및 조치를 논의할 것이다.

####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995\$/톤	MGO	'23.8.10

###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보인다.

#### 가. 어업 동향

- 금월 아메리칸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2~0.5톤의 어획물을

#### 나. 아마타의 남태평양 참치 조약법 검토

- 워싱턴 D.C. — Uifa'atali Amata는 Ed Case 하원의원(D-HI)이 미국과 태평양 국가 사이에서 협상된 남태평양 참치 조약법(H.R. 1792) 법안 검토에 참여하였다. 이 법안은 1988년 남태평양 참치 조약법을 수정하여 2016년에 채택되었고 상원이 2022년 비준에 대한 조언과 동의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제공한 조약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다.

- 야생동물 및 어업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핵심 단계이다. Amata 하원의원은 지역 어민들의 지원을 소위원회에 강조하고 청문회 공식 기록에 서한을 제출하였다.
- Amata 하원의원은 “의회는 감독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태평양에서 미국 참치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지시하여 우리 선단에 이익이 되도록 지시한다.”라고 말하였다. 건강하고 전통적으로 저렴한 식품 공급원으로서의 가치와 식량 안보 우선순위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참치 생산이 직면한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문제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이 중요한 증언과 지원 서한에 감사를 표하였다.
- 미국 참치 건착망 선단은 단 몇 년 만에 34척에서 13척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불법, 미신고, 비규제(IUU) 조업으로 인한 규제 증가, 접근 감소, 경쟁 심화에 직면하였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부 태평양에서 미국 참치 건착망 선단을 유지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갤런)	조사일
Clipper Oil	2.98	'23.8.3

####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황다랑어	라운드	1,700	
눈다랑어	라운드	1,500	
가다랑어	라운드	1,500	



##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

가. 오징어 어획 7년 중 최저 기록  
○ 2023 어기가 사실상 마무리된 현재 총 어획량은 1만 500톤을 기록하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수산업자에게 효자 어종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이 급작스럽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도별 쿼터량 및 어획량 추이〉

Commercial Catch vs. Allowance\* - Trend



###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톤)	유종	조사일
Z	1,103	MGO	'23.8.2

###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톤)	비고
호키	2L	3,050	
	L	2,950	
	M	2,800	
	S	2,500	

##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

### 가. 이빨고기 어업 동향

- INIDEP(국립수산물과학연구소)는 어업 상황을 분석한 Technical Report 22/23 발표하였다. 어획량 중 치어 비율이 안정적이라는 장점과 밀집도 등 우려되는 점등을 지적하고 해당 관리를 목표로 AMP 설립하고 어획량 어업방식 등을 계속 감시할 전망이다.
- INIDEP 연구원들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어획량과 치어 비율을 기반으로 2000~2022년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의 특성을 연구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일련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표시하고 채택된 계획 관리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 나. 중국, 어업보조금협정 정식 수용

- 6월 27일, 중국은 어업 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수락하였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보고했다.
- 인도와 중국이 가장 큰 우려국임을 제시한 20년 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문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이번 화요일 중국은 2020년 1월부터 부과될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협정은 아르헨티나가 남대서양에서 해양 자원의 과잉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배타적 경제 구역 내에서 오징어, 해덕, 대구 및 이빨고기와 같은 자원은 스페인 선박에 의해 피해가 크지만, 아시아 선박까지 허용된다면 관리의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한다.





-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의견일치로 채택된 어업보조금에 관한 협정에서 “중국이 어업 보조금 협정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것을 환영한다. 해양 어획 분야의 세계적 리더인 중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해양, 식량 안보 및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해한 어업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풍요와 기회의 유산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협정 비준된 후 Okonjo-Iweala가 발표했다.
-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아직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공식적으로 협정을 수락하지도 않았으며 WTO로부터 그들은 공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3분의 2의 수락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10개국만이 공식 수락을 했다고 지적하며 아직 중국을 공식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다. 오징어, 평균 어획량 및 크기 증가

- 수확 24주 차인 6월 13일까지의 수확량을 분석해 작성한 기술 보고서에 의하면 S사이즈는 지난 주에 40% 증가하였다.
- INIDEP 기술 보고서에는 수확 24주 차인 6월 13일까지의 오징어 선단 활동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달부터 어선단이 조업을 시작하였다.
- "6월에 3S 사이즈가 생산의 10%를 나타내고 S 오징어의 비율이 두 배(40%)로 관찰되었다. 어획량의 78%는 1월과 3월 사이에 남위 44° 이남에서 잡혔고 북쪽에서는 67척의 채낚기선에서 1만 7,289톤(일일 7톤)을 잡았고, 남쪽 37°와 43° 사이의 바깥쪽에서 조업하였다. 트롤 어선은 1만 1,342톤을 어획했다고 보고하였다.

- 23주 차에 440 남쪽에 있는 EEZ에 인접한 지역에서 최대 20척의 채낚기 선박이 조업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북쪽에서는 최대 25척의 선박이 조업했다. 영국과 분쟁 중인 아르헨티나 EEZ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의 수는 6척으로 추산된다.
- 첫 시즌에서는 평균 주간 어획량은 13주에서 20주 사이에 하루 6~8톤 사이로 저조했으나 2시즌22주째 남위 39° 이북에서 조업을 재개하여 하루 5톤의 어획량에 그쳤으나, 그다음 주에는 북부 관리부 전수역 재개장으로 2배인 11톤을 기록하였다.
- 공식 통계에 따르면 6월 21일까지 8만 7,368톤의 오징어가 어획되었고 이 수치는 전년대비 47% 감소를 나타낸다.

#### 라. 수산물 이력제 및 QR 코드 통합 개발

- 국립농식품보건품질원은 검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디지털 매체로 선보일 예정이다.
- 제품의 라벨에 QR 코드를 통합하여 소비자가 빠르고 민첩하며 명확한 판독 및 식별을 가능하게 하게 한다.
- 그동안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산물에 QR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용도를 높일 기회로 보고 있다.

#### 마. Mar del Plata 해안에서 석유 개발 승인

- 환경과 자원획득이라는 딜레마에서 심하게 마찰 중인 사안이 국회를 통과해 승인이 떨어졌다.
- 정부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반면 MAR DEL PLATA는 아르헨티나에서 최대의 해양 휴양도시이자 최대 어업 중심 도시이므로 두 입장이 강력하게 대립하였으나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인해 환경단체나 수산업계의 반발이 심화할 예정이다.



## 사. 정부 어획량 감소 검토

- 해양자원기술위원회는 헤이크, 가오리, 엔젤피쉬 남획으로 감소한 어획량이 허가된 쿼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이는 기상 악천후도 있으나 연간 꾸준히 감소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무리한 남획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 특히 한국으로 전량 수출이 되는 연안가오리 및 심해가오리들(홍어)은 1시즌에도 어획량이 줄어들어 2시즌이 되어도 쿼터가 남을 정도라고 말하며 이는 쿼터를 극단적으로 축소 및 제한하자는 입장으로, 현재 7천여 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비하여 1/5 수준이다.
- 정부는 2015년 홍어 및 가오리 등의 어종에 대하여 어획량(유입량)의 30%로 제한한 것과 어획량 감소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

## 아. 오징어 조업 재호황

- 7.18일까지 오징어 어획량은 19만 4,620.7톤을 기록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동기간은 22만 6,376톤이 집계되었고 2021년에는 20만 6,527.5톤이 집계되었다.
- 올해 초반기 기상악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나 후반기 6월과 7월에 새로운 반전으로 예년 수치보다는 부족하나 그래도 선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하지만 올해 중요한 차이점은 채낚기 선동 데이터는 예년의 46% 수준이지만 연근해 트롤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어획량을 통합한 물량이라 실질적이지 못한 데이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 가. 코트디부아르, 2023년 가나의 금어기 정책에 합류

- 코트디부아르는 줄어드는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가나와 함께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올해의 금어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은 2022년에 실시된 생물학적 조사 결과, 잡힌 물고기 수량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어류 사이즈도 더 커졌으며, 지속적인 금어기 실시로 대형어선업체는 7년, 카누어선업체는 4년 동안 어류 자원 회복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

### 나. 가나, 수생 자원 경제적 이익 주목

- GIMPA의 자연 자원 경제학자이자 연구 대학원장인 Wise Akpalu 교수는 가나가 금, 다이아몬드, 석유와 같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보다 생물학적 천연 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 GIMPA의 대학원 강당에서 첫 번째 교수 강의를 하던 Akpalu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천연자원 관리의 복잡성"이라는 주제로, 정부는 국가의 천연자원이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수는 생물 자원이 합리적으로 추출될 때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를 보충할 수 있지만 재생 불가능한 천연 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생물학적 자원은 우리에게 매우 가치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kl)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880달러	MGO	'23.7.31

####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500
	~10kg	2,000
가다랑어	3.4kg~	1,770
	1.8kg~	1,720
	~1.8kg	1,570
	~1.5kg	1,420

###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 가. 여전히 위협적인 불법조업선

- 미신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활동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해역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는 외국 어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어선에도 해당한다.
- 2023년 1~5월까지 해양수산부소속 해양수산감시단은 인도네시아 어선 61척과 외국어선 9척 등 총 70척의 불법어선을 적발하였다. 체포된 외국어선 9척 중 5척은 필리핀 국적, 3척은 말레이시아 국적, 1척은 베트남 국적이었다.
- 불법어업 관행에 대처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불법 어선의 나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여

전히 위협적이지만 인도네시아 어선의 위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 인도네시아 어선의 주요 위반행위는 허가되지 않은 조업 어구 사용 및 조업 지역 위반이다. 해양수산자원 감독국장 Adin Nurawaluddin씨는 어업허가를 받은 30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12마일 이내에서 조업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12마일 이내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Indonesia Ocean Justice Initiative 회장 Mas Achmad Santosa씨는 불법, 미신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 관행이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쳐 생계를 유지하는 소규모 소외 지역 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IUU 어업근절을 위해서는 다국적 조직과 연안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Indonesia Ocean Justice Initiative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Natuna해 어민들의 어장에 외국 국적어선이 침범하는 가운데 북나투나해의 소규모 어민들이 점점 남하하고 있고, 이번 침입은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합의 이후 분쟁지역과 미분쟁지역에서 감지되었다고 한다.
- 해양수산부 장관 Sakti Wahyu Trenggono씨는 정부가 쿼터기반의 '측정어획량' 정책과 다양한 어업에 대한 통합 감독을 통해 IUU 어업 관행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측정가능한 어획량에 관한 정부 규정 2023년 11호를 계속 개선하여 불법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당량 및 구역 지정 시스템으로 규제하여, 불법 조업활동을 방지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 가. 중국 연승선의 진출

- 현재 수산청 정보로 볼 때, 중국 연승선은 현지의 고비용(수산청, 대리점비, 항만청, 세관, 부두 사용료 등)으로 인해서 차차 줄어드는 형세라고 한다.
- PNG는 고비용 국가지만 이에 합당하는 설비 및 서비스는 미미한 관계로 외국 연승선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연승선의 1년 라이선스 비용은 연간 4만 6,000 달러이다.

### 나. PNG 내 치안 부재 문제

- 지난 13일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에서 주관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업계와의 미팅이 있었다.
- 동 회의에서 발의된 문제들은 파푸아뉴기니의 중국 GACC(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통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 현재 중국 세관은 전략적으로 1) 파푸아뉴기니의 할어 바닷가재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며 2) 파푸아뉴기니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호혜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파푸아뉴기니 입장으로선 수출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3) 또한 GACC와의 미팅에서 중국은 동 Penulirus Ornatus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여, PNG 수산청에서는 중국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중국 GACC로부터 정책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현재 중국은 자연산 바닷가재의 수입을 중단하였지

만, 양식산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산의 가격은 상당히 하락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다. 호주 수산청의 PNG 방문

- 코로나 제한이 종료된 2023년 호주 수산청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이웃 간의 현안 중 TSPZ(Torres Strait Protect Zone)협약 관련한 미팅을 가졌다. 이 회의에는 호주 수산청 청장을 필두로 다수가 참석하였으나, 파푸아뉴기니 측에서는 호주와 상반되게 몇몇 중간 간부들만 참석하였다.
- 이 미팅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그동안 호주에서 파푸아뉴기니의 진입을 막아왔던 행태의 종료가 이뤄졌으며, 이의 내년에는 PNG의 업자들이 호주 지역에서 바닷가재 조업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 하지만, 호주로서는 현재 중국으로의 직접 수출이 막힌 상태이며, PNG에도 그 영향으로 인해 현재는 동시에 수출이 금지된 상황이다.
- 호주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 6월 호주 정부 주도하에, 업체들이 한 국을 방문하는 등 시장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 게재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 꽂치김밥



###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꽂치캔 1캔(300g), 김밥김 2장, 현미밥 400g, 참기름 10g, 소금 3g, 청상추 6장, 깻잎 6장, 참깨 5g, 생와사비 10g
- 양념: 진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설탕 2큰술, 생수 1컵, 생강 1쪽

###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꽂치캔의 꽂치와 국물을 분리해 준비한다.
- ② 진간장, 맛술, 설탕, 생수, 생강을 넣어 간장소스를 만든다.
- ③ 냄비에 2번의 간장소스와 꽂치를 넣어 윤기가 나도록 중, 약불에 졸여준다.
- ④ 현미밥은 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해준다.
- ⑤ 김밥을 준비하고 김 → 현미밥 → 상추3장(깻잎 3장) → 꽂치 간장조림 → 생와사비 → 참깨 순으로 넣어 동그렇게 말아주면 완성
- ⑥ 한입 크기로 썰어 준비된 접시에 플레이팅한다.



## 8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8월 7일 기준 895 달러

8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7.63 달러, WTI 가격은 82.24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5.89 달러를 기록하였다.

8월 7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895달러로 7월 7일(731 달러) 대비 22% 상승하였다.

8월 평균(8.1~8.7) 가격은 904 달러로 전월 평균(7.1~31) 775 달러 대비 약 17% 상승하였다. 전년 7월(7.1~31) 평균과 비교해서는 13% 하락했고, 전전년 7월과 비교해서는 61% 상승하였다.

2023년 평균(1.1~8.7) 가격은 769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26%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32%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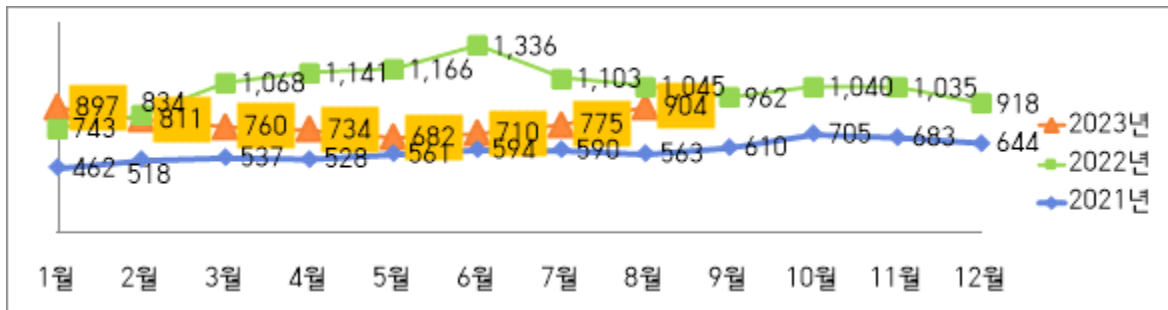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흑해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공습한 것이 강한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통해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가 수출된다. 엑스모빌과 세브론이 생산하는 카자흐스탄산 원유도 해당 항구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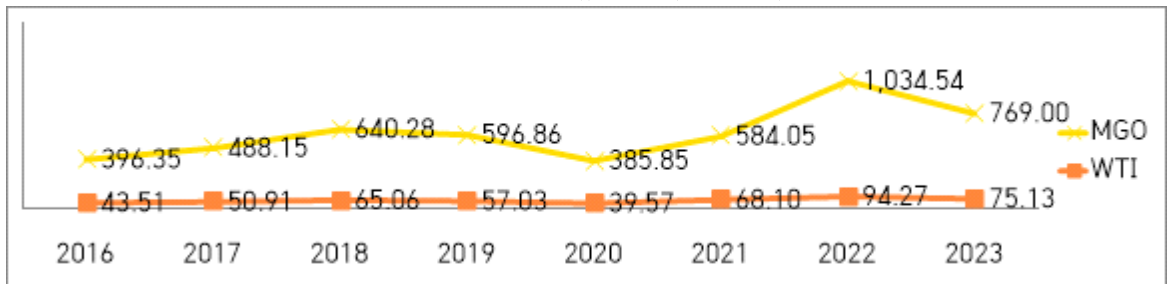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 감산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의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 배경이다. 증권가는 당분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월간 보고서에서 2023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전월 1.5%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브렌트 유가 전망치를 전월 전망(79 달러) 대비 7 달러 상향 조정한 86 달러로 전망했다.

〈 월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



〈 연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20 달러

이전 가격 대비 소폭 상승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의 가격은 톤당 2,020 달러로, 이전에 보고된 가격 대비 약 1% 상승하였다. 거래는 대부분 톤당 2,000~2,050 달러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MSC 인증 가다랑어를 크기, 품질, 조업 방식(FAD 또는 스쿨조업) 여부에 따라 톤당 50~100 달러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월까지 최종 구매자들의 주문량은 부족하였고 한

때 가공업체들이 생산을 감축해야 할 정도였다. 태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은 이집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16% 감소하였다. 반면 수출 가격은 평균 12% 상승하였다.

중서부태평양의 원어 공급은 저조한 편으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선망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일일 약 20톤 수준이다. 소식통은 또한 7월 말 주요 중서부태평양 선단의 일일 어획량이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9일자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920 달러

전월 대비 약 5% 상승

동부태평양의 올해 상반기 어획량이 양호하였기 때문에 만타 가다랑어 가격이 방콕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2개월간의 금어기(veda)와 엘니뇨의 시작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만타의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1,920 달러 선으로, 이전에 보고된 가격인 1,825 달러 대비 5.2% 상승하였다. 대부분의 거래는 톤당 1,900~1,925 달러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1,950 달러에 체결된 거래도 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현재 방콕 가다랑어 가격인 톤당 2,000 달러에 근접

하게 되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 어획량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5월 동안 같은 기간 대비 더 많은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어획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엘니뇨 시작으로 감소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중서부태평양 동부에서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성체 황다랑어가 예과도르 수역으로 이동 중임을 암시한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12일자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799 엔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kg당 1,075 엔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6월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대만선 일선매입(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가격은 작년 12월 kg당 1,150 엔에서 올해 7월 800 엔으로 급감하였다. 판매 부진으로 재고 소모가 지연되어 양륙을 기다리는 운반선의 대기가 길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 눈다랑어 GG의 6월 평균 수입 단가는 5월 가격인 853 엔보다도 한층 하락한 kg당 799 엔(22% 감소)으로, 800 엔 미만을 기록하였다. 가장 수량이

많은 대만산은 817 엔(20% 하락)을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에 따르면, 6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중 수량이 가장 많은 서경·태평양산의 증가(中値, 가장 판매량이 많은 가격)는 kg당 1,075 엔(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으로, 5월 가격인 kg당 1,124 엔 대비 급락하였다. 월 후반은 특히 약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는 초저온 냉동고에 공간이 없어 경매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출고 상황이 좋지 못하여 단가는 한층 하락하였다고 전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7월 18일자, 8월 4일자

## 중서부태평양 6월 전재량, 약 6만톤으로 급증

방콕 공급난 해결 여부는 미지수

6월 중서부태평양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항구에서 전채된 참치의 양은 총 6만 541톤으로, 5월 전채량 대비 25% 급증하였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매우 많은 양의 대형 황다랑어가 전채되었고, 가다랑어 전채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어황이 좋았던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이 6월에 한 번에 어획물을 전채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5월 어획이 저조했던 어선들이 6월에 어획물을 다량 전채하였다는 점 또한 전채량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

전채 활동이 중서부태평양 동부에 집중되면서, 전채 구역에 큰 변화가 관측되었다. 키리바시 항구에서는 지난 5월 대비 무려 400% 이상 증가한 2만

4,216톤의 어획물이 전채되었다. 이는 지난 수개월간 PNA 국가에서 관찰된 적이 없는 큰 수치이다. 6월 키리바시 EEZ에서 선망선단의 참치 어획량은 6만 6,000톤이다. 지난달 키리티마티(Kiritimati)의 최동단 항구에서 가장 많은 운반선 활동이 관측되었다.

마셜제도 마주로의 전채량은 다소 증가한 1만 9,000톤을 기록하였고, 파푸아뉴기니 항구의 전채량은 9,000톤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전채량 증가가 방콕 공급 상황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선망선단의 일일 어획량은 5월의 18톤보다 소폭 증가한 20톤에 그쳤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26일자



## 중서부태평양 '22년 선망 참치 어획량 270만톤 선망 어획량 약 37만톤

8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 과학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의 2022년 잠정 전체 어획량은 270만 2,099톤으로, 2021년보다 약간 많고 2019년보다 약 27만톤 낮은 수준이며, 태평양 전체 어획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체 참치 어획량의 약 64%인 173만 5,500톤을 기록하였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상위 5개 선망 가다랑어 선단은 태평양 도서국,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이다. 태평양 도서국 선단은 2003년 이후 가장 비중이 큰 어업이었고, 타 선단과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태도국 선단의 2022년 참치 어획량은 87만 4,580톤으로, 다른 상위 4개국의 어획량 총합보다도 많다. 2022년 태도국 선단의 어업 노력은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수역과 공해에 걸쳐 있었으나 주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수역 등 서쪽에 집중되었다.

2022년 선단이 어획한 열대 참치종의 어획량은 189만 3,794톤으로, 2021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체의 77%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12만 3,771톤 증가하였으나, 기록적인 해였던 2019년에 비해 약 25만톤 감소하였다.

2022년의 월간 가다랑어 단위당 어업노력량(이하, CPUE)은 2021년 대비 증가하였고, 2016~2021년 첫 6개월의 평균치보다도 대체로 많은 편이었으며, 하반기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편이었다.

2022년 어획된 가다랑어의 어체 길이는 1~2세 이상으로 간주되는 40~70cm이 대부분이다. '21~'22년의 선망 어획 가다랑어의 어체 크기는 예년과는 달

리 작은 개체가 대부분이다. 2021년 FAD와 스쿨조업 어획 가다랑어는 평균 약 45~55cm였으나, 2022년에는 38~45cm에 그쳤다. 다만 필리핀/인도네시아 군도 어업의 어획물 크기는 몇 년 동안 일정했다.

한편, 2022년 어획된 황다랑어의 총 어획량은 72만 1,169톤으로, 2021년 대비 약 6% 감소하였다. 2021년 황다랑어 어획량은 77만 7,763톤을 기록하였다.

2017년 이후, 황다랑어 연간 어획량은 기록적인 수준인 7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선망선단이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형선 손낚시(handline), 채낚기, 자망(gillnet), 연승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선망선단은 2022년 37만 9,715톤의 황다랑어를 어획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전체 선망 참치류 어획량 중 20%를 차지한다. 선망 어획 황다랑어는 2017년 50만 506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연승 어획량은 8만 4,232톤, 소형선 손낚시 어획량은 23만 3,562톤을 기록하였다.

지난 수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에서 엘니뇨 발생 시 스쿨조업 황다랑어 CPUE가 높았다.

선망 어획량은 대부분 성체(100cm 이상)가 일반적이며, 성체 황다랑어의 선망 어획량은 일반적으로 연승 어획량보다 많다.

120~140cm 크기의 선망 스쿨조업 황다랑어의 대부분은 중서부태평양 동부에서 어획되었다. 그러나 2016~2017년과 달리 2021~2022년 동안 스쿨조업에서 130cm 이상의 대형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선망 FAD 어업은 2021~2022년 동안 주로 45~50cm 크기의 황다랑어를 어획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27일자, 31일자



## 동부태평양 ‘22년 선망 가다랑어 어획량 약 29만톤 약 10% 감소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 연례회의를 앞두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동부태평양 선망 어업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다. 2022년 선망선단은 총 29만 7,511톤의 가다랑어를 어획하였으며, 어획물은 대부분 FAD 등 부유형 어구로 어획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다랑어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3~2022년이며, 연간 어획량은 15만 3,000톤에서 35만 1,000톤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어획량 35만 1,000톤은 2019년 기록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가다랑어 자원 수준에 대한 우려로 선망어업 어획량 증가에 대하여 수년간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과학위는 최신 자원 평가에서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이 건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어획물 수용량이 큰 선단은 에콰도르와 멕시코 선단으로, 각각 전체

의 31%와 24%를 차지하였다. 파나마와 미국(각각 11%), 베네수엘라(9%), 콜롬비아(6%), EU(스페인)와 니카라과(각각 3%), 엘살바도르(2%)가 그 뒤를 이었다.

하단의 그래프는 2022년 어구별 선망어업 가다랑어 어획량 분포를 보여준다. 대부분이 FAD 어획량(오렌지색)은 에콰도르, 페루, 칠레, 공해에서 발생하였다. 스쿨조업은 주로 페루 수역에서 행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어획된 가다랑어의 어체 크기는 대부분 40~50cm였다. 가장 큰 개체(60~70cm)는 동부태평양 동부에서 2022년 3~4분기 동안 FAD로 어획되었다. 가장 작은 개체(50cm 미만)는 주로 북, 동, 남부 수역의 세트에서 연중 어획되었고, 2022년 2분기에는 남부에서 어획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1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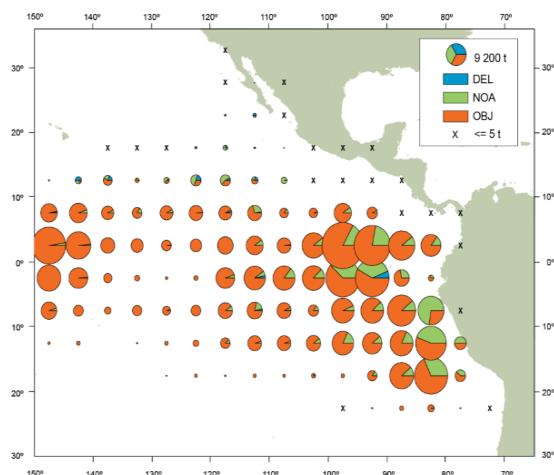


FIGURE A-2b. Annual distributions of the purse-seine catches of skipjack, by set type, 2022. The sizes of the circles are proportional to the amounts of skipjack caught in those 5° by 5° areas.



## 동부태평양 '22년 황다랑어 어획량, 15% 증가 약 29만톤 어획

동부태평양 선망선단은 2022년에 29만 1,826톤의 황다랑어를 어획하였다. 이는 2021년 대비 15% 증가한 것이다. 한편, 채낚기로 어획된 황다랑어는 332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황다랑어 어획량을 기록 중인 멕시코 선망선단은 2022년 11만 9,479톤을 어획하였다. 에콰도르 선단 어획량이 5만 9,669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국가 모두 전년 대비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미국 선단 어획량은 4,412톤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가 최근 발표한 동부태평양 참치 어장 보고서가 출처로, 15년(2007~2021년)간 선망, 채낚기 어획량의 연간 평균은 22만 3,000톤이다. 2022년 황다랑어 어획량은 이전 15년간의 연간 평균 대비 27% 많다. 2007~2021년 동안 황다랑어 총 어획량의 약 0.3%가 바다에 버려졌다.

2022년 황다랑어 어획량의 대부분은 북위 105도

부터 140도까지의 북위 5도 이북(멕시코 EEZ 및 공해)과 북위 5도부터 100도까지의 북위 5도 이북 연안(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 인근)의 '돌고래 연계 조업(sets associated with dolphins, 이하, DEL)'을 통하여 어획되었다. 지난 5년 대비, DEL과 '부유형 어구 조업 방식(floating-objects sets, 이하, OBJ)'으로 어획된 어획물의 양이 증가하였다.

동부태평양에는 4개의 OBJ, 3개의 DEL, 2개의 비연계 방식(unassociated, NOA), 1개의 채낚기(LP)로 구성된 총 9개의 선망 어업이 존재한다. 2022년 어획된 황다랑어의 개체당 평균 무게는 6.5kg으로, 2020년 평균 무게인 10.5kg보다 훨씬 적었고, 다른 해의 평균(7.2~7.9kg)과 비교해도 적은 편이었다. 크기 분포는 예전에 비하여 훨씬 작은 축으로 이동하면서, 어린 개체가 많이 어획되었음을 암시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24일자





## 日, 6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수입량 599톤

〈 2023년 6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날개 다랑어	한국	-	96	99	217	155	244
	대만	27	4	281	473	437	21
	바누아투	-	1	131	198	353	-
	기타	105	42	3	-	31	125
	소계	133	144	396	888	975	391
황다 랑어	한국	173	217	262	92	58	505
	중국	54	338	265	304	177	537
	대만	1,295	1,668	1,245	1,793	1,865	1,240
	필리핀	987	245	74	122	121	-
	인도네시아	26	94	164	67	17	-
	미국	-	-	-	-	-	-
	바누아투	56	168	400	251	101	127
	피지	16	12	28	-	18	4
	키리바시	4	2	13	3	-	-
	마셜제도	180	1	197	-	267	124
	기타	1,662	692	3,465	1,106	1,975	1,781
	소계	4,453	3,437	11,209	3,738	4,598	4,317
눈다 랑어	한국	84	136	126	513	112	559
	중국	136	373	949	558	479	1,115
	대만	1,717	1,538	2,639	2,852	2,757	2,284
	필리핀	-	-	-	-	-	-
	인도네시아	1	30	8	8	7	-
	세이셸	562	280	137	364	368	686
	바누아투	41	309	484	613	232	82
	기타	36	82	40	117	52	151
	소계	2,578	2,748	4,385	5,026	4,007	4,918
남방 참다랑 어	한국	-	132	-	-	-	-
	대만	6	10	5	-	-	-
	호주	-	-	-	-	-	20
	소계	-	-	-	-	-	-

\* 출처: 일간수산업경제신문, 2023년 8월 4일자





## 日, 2인 이상 가구 참치 지출액·구입량 통계 발표

2022년 평균 월 415 엔 지출, 136g 구입

일본 2인 이상 가구의 참치 지출 금액, 구입량

(출처: 일본 재무성 통계국 가계조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지출 금액 (엔)	2019	407	351	430	418	453	418	402	451	408	401	384	685	434
	2020	404	421	456	421	474	451	420	499	407	384	414	670	452
	2021	415	434	465	433	507	467	444	509	409	422	401	650	463
	2022	396	419	440	411	420	403	386	411	358	350	340	649	415
	2023	376	356	420	410	455								403
구입 량 (g)	2019	146	138	166	143	179	173	156	186	150	149	140	204	161
	2020	135	154	184	170	176	169	171	168	159	153	163	223	169
	2021	148	152	171	156	195	174	189	195	152	155	140	173	167
	2022	145	157	156	140	142	145	136	119	128	111	105	143	136
	2023	97	111	137	139	139								125
평균 단 가 (엔)	2019	279	254	259	292	253	242	258	242	272	269	274	336	269
	2020	299	273	248	248	269	267	246	297	256	251	254	300	267
	2021	280	286	272	278	260	268	235	261	269	272	286	376	279
	2022	273	267	282	294	296	278	284	345	280	315	324	454	308
	2023	388	321	307	295	327								327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8월 8일자



## IOTC, 세이셸·中 황다랑어 어획 한도 추가 할당

中 8,035톤, 세이셸 3만 7,732톤 外

국가	기본 할당 어획 한도 (톤)	할당 어획 한도 (톤)	
		2022	2023
호주	2,000	2,000	2,000
방글라데시	2,000	2,000	2,000
중국	10,557	7,658	8,035
코모로	5,279	5,279	5,279
에리트레아	2,000	2,000	2,000
EU	73,078	72,091	72,091
프랑스(프랑스령)	500	500	500
일본	4,003	4,003	4,003
케냐	3,654	3,654	3,654
한국	9,056	9,056	9,056
말레이시아	2,000	2,000	2,000
몰디브	47,195	47,195	47,195
모리타니	10,490	10,490	10,490
모잠비크	2,000	2,000	2,000
파키스탄	14,468	14,468	14,468
필리핀	700	700	700
세이셸	39,577	36,587	37,732
남아공	2,000	2,000	2,000
스리랑카	33,245	33,245	33,245
수단	2,000	2,000	2,000
탄자니아	3,905	3,905	3,905
태국	2,000	2,000	2,000
영국	500	500	500
예멘	26,262	26,262	26,262
합계	298,469	291,593	293,115

\* 출처: Atuna, 2023년 8월 8일자



## 태국 '23년 상반기 냉동 참치류 수입 14% 감소 수입량 약 31만톤

태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참치 어종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1만 3,012톤이며, 수입 단가는 톤당 2,030 달러로 상승하였다.

가다랑어를 주 어종으로 어획하는 대만 선망선단의 상반기 태국행 수출량은 전년 동기 15% 감소한 5만 4,051톤을 기록하였다. 평균 단가는 톤당 2,119 달러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품목에 날개다랑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몰디브의 상반기 태국행 수출량은 4만 5,466톤으로 전년 대비 47%나 증가하였다. 평균 단가는 톤당 1,992 달러로 2년만에 605 달러나 상승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의 수출량은 1월 이후, 특히 4~6

월 동안 자국 수역에서 참치 어획량이 매우 적었다는 데이터를 따라갔다. 이들의 상반기 태국행 수출량은 전년 대비 43%나 감소한 2만 7,563톤이며, 1분기에는 1만 4,544톤, 2분기에는 더욱 감소한 1만 3,019톤이었다.

한국 선단의 상반기 태국행 수출량은 3만 265톤으로 6% 증가하였고, 평균 단가는 톤당 1,936 달러로 약 100 달러 상승하였다.

마셜제도 선단의 태국행 수출량은 37%나 감소한 7,967톤을 기록하였다. 키리바시, 바누아투, 투발루 등의 태국행 수출 또한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일자

## 태평양 국가, 미국과 경제 지원 협정 체결 연간 2,1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로 증액 성공

태평양 연안국은 미국 정부와 새로운 경제 지원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6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마누 투푸-루센(Manu Tupou-Roosen) 태평양 수산물기구 사무총장은 지난주 폐막한 포럼 수산 장관회의가 끝난 후 마셜제도 마주로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마누 투푸-루센 박사는 협정에 서명하면서 "경제지원협정에 따른 미국의 지원 증가는 모든 FFA 회원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제 지원 협정은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이 협정에 따라 FFA는 특정 태평양 도서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조약(미국 참치 어업 조약)의 당사국인 태평양 도서국에 지급되는 경제 개발 기금을 유지한다.

2022년, 수산 장관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여 경제 지원 협정에 따른 기금을 향후 10년간 연간 2,1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2023~2033년간 총 6억 달러)로 증액하는 데 성공하였다.

\* 출처: FiskerForum, 2023년 7월 23일자



## EU-인도, 어업 분야 협력 강화

### 수산 분야 양자 관여 합의

인도와 EU는 참치를 포함한 수산 분야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양자 관여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최근 뉴델리에서 개최된 Virginijus Sinkevičius EU 환경청장과 Parshottam Rupala 인도 수산장관 간 회의에서 확정되었다.

협상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인도가 아직 서명하지 않은 'IUU 어업 방지를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the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to prevent IUU fishing)'에 관한 것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 관한 내용도 논의되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불명확하다. EU는 또한 인도가 아직 조인하지 않

은 WTO 수산 보조금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양측은 또한 “어업에 대하여 구성될 예정인 공동 작업반의 틀 안에서 시장 접근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뉴스 사이트 Digpu가 보도하였다.

인도는 또한 EU가 인도태평양해양이니셔티브(IPOI) 가입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비조약 기반의 개방형 이니셔티브이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31일자

## 美-대만, 지속가능 어업 관련 합의 체결

### IUU 근절 등 논의

지난 7월 중순, 5년 만에 개최된 대만-미국 어업 양자협약에서, ‘대만-미국 어업 및 양식 협력 각서’ 및 상호 구축 지원 방안과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IUU 어업 근절, 공해상 검사, 어업 부문 노동 문제, 기후 변화, 해양 순찰 협력,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등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공동 참여 등이 논의된 주제의 일부였다.

미국은 IUU 어업 퇴치를 위한 대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대만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만을 가까이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인신매매보고서는 대만을 티어 1로 배정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18일자



## 호주 정부, 美 기업과 IUU 방지 목적 제휴 체결

### 태평양 中 선단 활동 감시 강화

호주 정부는 태평양에서 '보다 넓은 해양 영역 인식'을 얻기 위하여 미국의 위성 데이터 기업인 호크아이 360사(社)와 제휴를 체결하였다. 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FFA)의 IUU 어업 근절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이니셔티브는 태평양에서 중국 선단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호주와 미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크아이 360사는 참가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FFA 17개 회원국과 협력하여 자국 수역에서의 불법 해양 활동을 탐지하고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선 주파수 데이터, 분석 및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또한 AIS에 포착되지 않는 선박 활동의 파악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호크아이 360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 활동은 Quad(호주, 인도, 일본, 미국) 국가들이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의 일환으로써 추진한 것이다.

\* 출처: Atuna, 2023년 8월 2일자

## 가봉, WTO 수산보조금협정 동참

### 협정 발효에 필요한 1/3 이상 수락 충족

아프리카 국가인 가봉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수산보조금협정(이하, AFS)을 비준하고 이에 구속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최근 중국에 이어 AFS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가봉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협정에 동참한 국가가 되었다. Mireille Sarah Nzenze 가봉 대사가 응고지 오킨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에게 가봉 측의 '수락서(instrument of acceptance)'

를 전달하면서, 협정 발표에 필요한 조건인 1/3 이상의 수락이 충족되었다.

가봉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가봉 수역에서는 32만톤의 참치 및 참치 유사 어종이 어획되며, 이는 2021년 대서양 어획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라디오 FI는 보도하였다. 가봉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만 2,790km<sup>2</sup>이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13일자



## 2023년 동부태평양 선망선 수용량, 약 30만톤 전년도와 거의 동일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선망선단의 잠재적 어획물 수용량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며 거의 대부분 가용되고 있다. 2022년 동부태평양 선단의 참치 어획량은 기록적 수준인 64만 8,707톤이었다.

8월 3일 예정된 IATTC 작업반 회의를 위하여 제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선단의 잠재적 총 수용량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30만 2,863  $m^3$ 이다. 2023년 6월 30일까지 선박 명단에 등록된 가용 선망선 수용량은 27만 2,315  $m^3$ 으로, 전년 대비 592  $m^3$  증가하였다. 가용 불가능한 용량은 1만 3,741  $m^3$ 이다. 이는 동부태평양 선단이 총 잠재 용량의 약 94%를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2년 6월 어업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운용량(operative amount, 해당 연도 동부태평양에서 참치를 어획한 모든 선박의 총 수용량  $m^3$ )은 2002년 수준보다 적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잠재적 수용량은 2023년에 2002년 대비

2만 9,396  $m^3$  증가하였다.

에콰도르와 멕시코는 동부태평양 최대의 선단을 보유하고 있다. 에콰도르 선망선단의 운용량은 2019년부터 하락 추세이다. 2022년 동부태평양에서 조업한 선박 수는 2021년 대비 3척 감소하였다. 에콰도르 국적선 103척은 잠재적 어획물 수용량의 약 26%로, 부피 측면에서 최대 규모이다. 현재 IATTC 명부에는 에콰도르 선망선 111척이 8만 7,934  $m^3$ 의 총 수용량을 보유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2022년 동부태평양에서 조업한 멕시코 선망선은 총 52척으로, 2021년 대비 1척 증가하였다. 멕시코 선단은 2022년 운용량이 증가하여 전체 잠재적 수용량의 20%를 차지하였다.

2022년 동부태평양에서 조업한 미국 선망선은 총 25척으로, 전년 대비 8척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18일자







## 중서부태평양 '22년 선망어업 경제지수, 8년만의 최저치 러-우 전쟁 및 유가 상승 등 원인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이하, WCPFC)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서부태평양 참치 선망어업의 경제성은 좋지 못하였다. 이는 고유가 추세 및 전쟁으로 인하여 참치 공급망 비용이 급상승한 것에 기인하였다.

해당 보고서의 경제 지수 분석은 지난 20년(2002~2021년)간 어획량, 상대적 어가, 어업 비용(입어료 제외) 등을 조사한 수치이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정보는 20년간의 평균을 기준치인 100으로 설정한 값인 '열대 선망어업 경제지수'라는 단일 지수로 표기된다. 100 미만은 어업이 평균 미만의 경제 상황임을 나타내는 반면, 100 이상은 어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망어업 경제 상황 변화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원료 가격 변화이다. 최근의 데이터에는 어획량 변화가 경제 지표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2012년, 2013년과 같이 어가가 하락한 연도의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열대 선망어업 경제지수는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을 유지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지수는 101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국제 참치 공급망에 심각한 비용 상승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선망 참치 어획량을 가치로 환산하면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억 5,900만 달러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가격이 사상 최고치였던 2012년과 2013년의 약 40억 달러에 비하면 19% 적다.

선망 어획 가다랑어의 총 매출액은 2021년의 18억 9,000만 달러에서 28% 증가한 24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선망 참치 어획물 매출의 74%를 차지하였다. 황다랑어 매출액은 2021년 대비 2% 증가한 7억 5,900만 달러이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31일자





## 2023년 美 단일관세 쿼터 10% 감소

1,337만 7,875kg까지 6% 적용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최근 단일관세(single duty)로도 불리는 관세율표(HTSUS) 해당 ‘염수 청크 라이트(Chunk light in brine)’ 참치캔의 수량을 발표하였다.

당국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소비되기 위하여 창고에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밀폐용기 보관 참치’에 6%의 수입세가 적용된다.

관세 인하 한도는 1,337만 7,875kg으로 설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2년 한도는 1,467만 2,350kg이었다. 이 한도는 전년 동안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참치 수량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된다. 이

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전 품목에는 일반적으로 1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일 관세 한도 감소는 해당되는 기간 동안 청크 라이트 참치 통조림(HTSUS 1604.14.22 참치, 가다랑어 및 보니토(sarda Spp), 사전조리 또는 보존식)의 수입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무역 데이터 분석업체인 Descartes Datamyne에 따르면 대미 수출에 이 코드를 사용하는 주요 공급업체는 타이유니온 그룹, 스타키스트 사모아, MMP 인터내셔널(태국), 타이유니온 제조기업(Manufacturing Company), S.C.A SA(동원의 세네갈 자회사) 등이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14일자

## 美 정부, 수입 양철 관세 300% 방안 검토 중

아메리칸사모아 의원 반발

미국 정부가 참치 통조림 및 기타 통조림용에 사용되는 수입용 양철판에 대해 무려 300%나 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아메리칸사모아 Aumua Amata 의원은 이것이 통조림 등의 식사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관세 부담을 지우는 조치이며, 아울러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조치와 마찬가지로

로 자국 참치 공급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미국 전역의 소비자 포장 제품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BA)에 따르면, 수입세가 참치 및 기타 식품 통조림 가격을 평균 58 센트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27일자



## EU 참치 통조림 업계, 올리브유 가격 급등 직면 스페인 등 세계 올리브유 생산 급감

국제올리브유위원회에 따르면, 스페인의 2022년 올리브유 생산량은 85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평균치인 130만톤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예측은 현재 기후 문제가 남부 유럽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발표되었다. 위원회는 또한 2022/23 수확 기간 동안 가뭄과 지중해 지역의 높은 봄철 기온으로 인하여 세계 올리브유 생산량이 지난 5년 평균 대비 12% 이상 적은 273만톤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업체인 Filippo Berio의 영국 지부 CEO인 Walter Zanre는 스페인이 예상치인 생산량 85만톤을 달성해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올리브 작황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버진과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무역 모두 2022/23 기간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0월 이후로는 특히 심해졌다. 7월 첫째 주 두 제품의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탈리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가격은 톤당 7,860 유로(8,745 달러)로, 2021/22 기간 대비 82% 상승하였고, 버진 올리브유 가격은 6,870 유로(7,642 달러)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에서 버진 올리브유는 2021/22 대비 85% 높은 톤당 6,291 유로(6,999 달러)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6,721 유로(7,477 달러)에 거래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24일자

## TUNACONS,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MSC 인증 획득 미국, EU 참치 시장에 큰 변화 예상

에콰도르 어업 그룹 TUNACONS가 동부태평양 가다랑어의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는 EU 시장으로의 참치 통조림 및 자숙로인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에콰도르가 이제 MSC 인증 가다랑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시장 판도를 바꿀 사건으로 관측된다. TUNACONS는 기존에 황다랑어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다.

에콰도르 선단 가다랑어 MSC 인증은 에콰도르의 경쟁국인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타

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EU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참치를 판매해왔다. 특히 MSC 참치의 최대 소비국인 독일 시장에 공급되는 어획물은 대부분 나우루협정당사국 및 PNG 어업협회 MSC 인증 제품이다. MSC 가다랑어가 없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의 2022년 EU행 참치 통조림 수출은 8% 증가한 8만 4,811톤을 기록하였다. 반면 필리핀과 PNG의 1, 3분기 수출 실적은 좋지 못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20일자



## 수산물 오메가-3, 청력 및 폐 건강 유지 효과

### 美, 캐나다 등 연구 결과 발표

오메가-3 지방산은 내이 세포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 물질, 감염 또는 소음에 대한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미국 영양 학회 2023에 의해 보고되었다.

캐나다 켈프 대학교 연구진은 10만 명 이상의 혈중 오메가-3와 관련된 도코사헥사엔산(DHA) 수치와 청력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혈중 DHA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수산물을 가장 적게 섭취하고 DHA 수치가 낮은 사람에 비해 청력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16% 낮았다. 또한 DHA 수치가 낮은 사람은 배경 소음이 있을 때 대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노인과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수치가 증가하면 노화와 관련된 청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 국립보건원(이하, NIH)은 'Omega-3 fatty acids appear promising for maintaining

lung health'라는 최신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1부에서 연구진이 1만 5,063명의 건강한 미국인(여성 55%, 평균연령 56세)을 대상으로 7~20년간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높은 오메가-3 혈중 농도가 폐 기능 저하 방지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참치 등에 풍부한 DHA와의 강력한 연관성이 관측되었다.

보고서 2부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유럽인의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DHA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오메가-3 지방산이 높은 수준의 폐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 심폐혈액연구기관(NHLBI)이 주로 자금을 지원하였고, 미 호흡기 및 중환자 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of Medicine)에 게재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31일자, Izvestiya, 7월 26일자

## 미쓰비시, Princes 그룹 매각 중단

### 최고 입찰가, 기대치 못 미쳐

일본 미쓰비시가 자회사 영국 참치 기업 Princes 그룹에 대한 매각 입찰을 중단하였다.

미쓰비시는 초기 단계에서 Princes의 매각가를 6억 파운드(약 7억 6,880만 달러)로 상정하였으나, 최고 입찰가는 2억 파운드에 그쳤다.

입찰자들을 주저하게 만든 원인으로 Prince의

수익성 감소 등이 지목되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베인캐피탈 및 론스타 산하의 Valeo Group, OneRock, TPG 등의 투자자들이 Princes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10일자



## FAO “2021년 대왕오징어 어획량 100만 4,278톤”

살오징어류 9만 9,540톤

UN 식량농업기구(이하, FAO)가 2021년 전세계 오징어 어획량 통계를 발표하였다.

2021년 살오징어류 전세계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9만 9,540톤을 기록하였다. 주요 어획국 중 일본 어획량은 35% 감소한 3만 1,300톤, 한국은 7% 증가한 6만 851톤, 2013년부터 어획량이 두드러지는 러시아는 48% 감소한 7,389톤이었다.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어획량은 10% 증가한 100만 4,278톤을 기록하였다. 이 중 페루 어획량은 5% 증가한 51만 7,710톤, 중국은 21% 증가한 42만 1,971톤, 칠레는 3% 감소한 5만 3,569톤이다. 북

태평양 빨강오징어와 무라사키오징어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일렉시오징어의 전세계 어획량은 30% 증가한 44만 7,092톤을 기록하였다. 이 중 대만 어획량은 2.9배로 증가한 14만 5,797톤, 중국은 2.3배로 증가한 13만 9,727톤이다. 아르헨티나 어획량은 23% 감소한 13만 2,194톤을 기록하였다.

캘리포니아 롤리고 오징어는 73% 증가한 5만 7,121톤, 캐나다 일렉시오징어는 2% 감소한 3만 4,169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7월 17일자

## 中 남미 오징어 6월 하순 가격, 고가 추세 지속

어획 부진, 中 내수 증가 등 영향

일본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6월 하순 시점 중국 내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원어 가격은 1미 500g 이하 1만 4,000~1만 4,500 위안(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 500g~1kg 1만 2,000~1만 2,500 위안(50% 상승)으로, 고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선단의 출어 척수가 적고, 어획량도 부진하다. 소형 오징어는 여름에 중국에서 꼬치구이 재료로 수요가 높다는 점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페루의 1~4월 어획량은 어획량이 적었던 작년의 3.1배인 32톤을 기록하였으나, 5월 이후 해수 온도 상승

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좋지 못하였다. 상사 소식통은 “페루 정부가 2023년 어획량이 50만톤을 넘는 시점 또는 9월 30일에 금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칠레는 6월에 접어든 이후, 기상 악화로 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5월 후반 시작된 미국의 캐나다 일렉시오징어 어획량도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1~5월 냉동 오징어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3만 3,947톤이며, 평균 단가는 21% 상승한 kg당 589 엔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7월 20일자



## 中 7월 소형 일렉스오징어 가격 하락세

### 아르헨티나 6월 말~7월 어획량 급증 원인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소형의 거래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지난 6월에 비하여 중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아르헨티나의 일렉스오징어 7월 어획량은 2만 5,456톤으로, 25톤에 그쳤던 작년 7월과 달리 많은 양을 기록하였다.

마리당 150~200g은 지난 22주차(5월 29일~6월 4일)에 톤당 3만 1,650 위안(약 4,404 달러)을 기록하였으나, 29주차(7월 16일~7월 22일)에 톤당 2만 9,250 위안으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마리당 200~300g은 톤당 3만 750 위안에서 톤당 3만 위안으로 하락하였다.

어획량 증가는 아르헨티나 어기 초반의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추세 속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획량이 증가하기 전인 5월에는 150~200g 가격이 2022년 5월 대비 약 30% 상승하였다.

아르헨티나 오징어채낚기어선협회의 Juan Redini 회장은 6월 말과 7월에 어획량이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회장은 오징어 어체가 60g 정도로

매우 작았기 때문에 평년과는 달리 6월에 3주 동안 항구에서 대기하고 7월에 어업을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Redini 회장은 북쪽에서 어획물의 반 정도가 100~200g이었고 나머지가 200~300g이었으며, 두 번째 항차에서는 90%의 어획물이 200~300g이었다고 말하였다.

월별 어획량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몇 주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7월 어획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일렉스오징어 어획량은 2022년 6월 1,344톤에 불과하였으나 올해 6월에는 1만 4,020톤으로 급증하였다.

다만 마리당 300g 이상은 여전히 전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 부족을 이어나갔다.

전반적인 일렉스오징어 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한 수준을 유지 중으로, 팬데믹 이전의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7월 25일자







## 아르헨티나 5월 일렉스 수출량 급감

수산물 수출량 3만 6,081톤, 금액 1억 3,260만 달러

아르헨티나의 5월 수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지만, 금액은 14.6%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6,081톤의 수산물을 수출하여 1억 3,260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렉스 오징어 수출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여 일렉스 오징어 수출량은 9,128톤 (2,070만 달러) 2022년 5월 어획량 21,509톤 (4,530만 달러) 대비 58%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징어의 연평균 수출 가격은 7.6% 상승한 kg당 2.27달러로 집계되었다.

2023년 5월 대구 수출량도 전년 대비 72%, 58% 증가한 1만 1,544톤, 3,030만 달러에 달하였다. 평

균 수출 가격도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8% 하락한 \$2.63/kg을 기록하였다.

시장별로는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물량 18%, 금액 131% 증가한 약 5,664톤, 2,65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다.

스페인으로의 총 수출량은 4,968톤, 1,9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26% 증가했으며, 브라질의 수출량은 2,130톤, 390만 달러로 역시 5% 증가했지만 금액은 3% 감소하였다.

4위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물량은 26% 감소했지만, 금액은 7% 증가한 2,033톤, 1,530만 달러, 5위인 태국으로의 수출은 65%와 37% 감소한 1,923t, 760만 달러에 달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7월 21일자

## 아르헨티나 6월 수산물 수출 감소

### 오징어 판매 감소

아르헨티나의 6월 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수출액도 15%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에 따르면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6월에 총 3만 3,644톤의 수산물을 전 세계에 1억 2,41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오징어와 대구 수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22년 6월 어획량 25,210톤 대비 76% 감소한 약 6,025톤의 일렉스 오징어를 수출하였다. 수출

금액도 5,530만 달러에서 1,46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많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kg당 2.42달러로 집계되었다.

아르헨티나 전체 수산물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6월에 5,198톤, 금액 2,12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물량 기준 1%, 금액 기준 28% 증가하며 1위를 차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8월 7일자



## 日 마루하 니치로, 22/23 매출 1조 엔 돌파

### 명태 조업으로 수익 25% 급증

세계 최대 수산물 기업인 일본 대기업 마루하 니치로는 2023년 3월에 마감된 2022/2023 회계연도에 어가 상승과 해외 사업 성장에 힘입어 수익과 매출이 모두 급증하였다.

이 거대 수산 기업은 어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조정에 힘입어 매출이 17.7% 증가하여 처음으로 1조 엔(71억 달러)을 돌파하며 연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2%, 58억 엔(4,130만 달러) 증가한 296억 엔(2억 1,050만 달러)을 기록하였다.

그룹의 해외 사업 부문은 42억 엔(2,990만 달러)의 영업이익으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회계연도 총 134억 엔(9,530만 달러)을 기록하였다. 해외 사업부 매출은 45% 증가한 총 2,335억 엔(16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북미 알래스카 명태 사업과 태국 반려동물 사료 사업이 해외 실적 호황을 이끌었다고 그룹은 밝혔다.

전반적으로 그룹의 모든 수산물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물 사업 부문은 어가 회복, 시장 가격 상승, 판매량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60% 증가한 214억 엔(1억 5,220만 달러)을 기록하였다.

마루하는 어업 부문에서 주요 어종의 판매 호조와 가격 회복을 보였으며, 양식 사업 부문은 시장 가격 상승과 함께 외식 및 기관 부문의 매출 회복으로 수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해외 사업 부문이다. 마루하는 최근 북미 알래스카 명태 조업권 획득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마루하는 알래스카의 두 그룹과 제휴하여 알래스카 명태 어선 9척과 캐나다에 본사를 둔 Cooke가 소유한 가공 선박 1척을 인수하였다.

마루하는 미국에서 가공업체 Westward Seafoods, Alyeska Seafoods, Premier Pacific Seafoods, 그리고 연육 생산업체 Trans-Ocean Products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견고한 시장"에서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순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유럽에서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회사 수 증가로 인해 해외 사업의 매출과 수익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루하의 유럽 해외 순매출은 68% 증가한 943억 엔(6억 7,070만 달러)을 기록하였다. 북미에서는 48% 증가한 627억 엔(4억 4,600만 달러)을, 아시아에서는 23% 증가한 549억 엔(3억 9,050만 달러)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인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물량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룹의 가공식품 부문은 순매출이 증가하였다.

이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가격 조정 효과, 성공적인 판매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7월 11일자



## 러, 어업 개선 장려 위하여 세금 변경, 자금 지원 활용 어선 유지보수 및 고차가공 생산 장려

러시아 정부는 어선 유지보수 문제에 대응하고 고차가공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변경하고 극동 어업 구역의 인프라 개선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어선은 과거에 사용했던 외국 항구, 특히 러시아 선주들이 선박 수리를 수행했던 노르웨이 항구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노르웨이는 2022년 5월 러시아 트럭과 선박에 대해 국경을 폐쇄했으며, 2022년 10월에는 어선까지 제한을 확대하였다. 이제 러시아 선박 소유주는 노르웨이 조선소에서 수리받을 수 없으며, 보츠피오르드, 트롬쇠, 키르케네스 등 3개 항구에서만 승무원 교체, 병커링, 하역, 식료품 수령, 검문검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 따라 러시아 선주들은 러시아 조선소에서 수리받아야 하며, 러시아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선주들이 자국 내에서 선박을 수리하고 선박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선박 소유주는 러시아 산업통상

부 및 재무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연간 자금 중 일부를 러시아 조선소의 수리 및 업그레이드에 할당해야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업그레이드 및 수리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계약은 2024년 말까지 체결되어야 한다.

다른 세금 인센티브는 명태 제품의 심층 가공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사용되고 있다. 2022년 11월 러시아는 어업 회사가 명태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하도록 세금 코드를 변경하여 명태에 대한 '해양 생물 자원' 사용료를 톤당 최고 4,300루블(47.69달러)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새 선박을 사용하는 회사에는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명태 연육은 인센티브를 받는 제품 중 하나였으며, 명태 협회장은 2022년에 명태 어획량의 37%가 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7월 14일자

## 러 정부, 명태 등 자원세 공제 생산, 수출 인센티브 증가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12월 수생 생물 자원이용세 개정 시행과 관련, 지난 7월 6일 공제 대상 목록을 발표하였다.

공제 대상은 극동 명태와 청어 필렛, 어육(연육, 민스 포함), 어분 등이다. 또한 대구 필렛, 연어와

송어 제품, 북부 수역 대구 필렛과 어육(연육과 민스 포함)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 명태어업자협회 회장에 따르면, 2022년 명태의 37%가 고차가공품으로 가공되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7월 19일자



## 러, 어류 수출 전년 수준 유지

### 명태 증가, 대구 감소

러 어류 연합 분석 센터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의 생선 수출량은 140만톤이다. 동시에 금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2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러시아 생선 수출 구조에서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은 중량 기준 53%, 금액 기준 43%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은 중량 기준 34%, 금액 기준 35%로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의 비중은 중량 기준 8%로 감소했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14%로 변동이 없었다. 일본은 공급량의 1%(금액 기준 3%)를 차지하였다. 독일은 상위 5대 시장에 진입했지만, 비중은 중량 기준 1%, 금액 기준 1%로 감소하였다. 한편, 라이베리아, 토고, 니제르 등 아프리카로의 수산물 공급이 확대되었다.

2023년 1~7월 실적 기준 상위 6대 수출 품목:

1. 냉동 명태: 중량 기준 전체 선적량의 44%(전년 대비 23% 증가), 금액 기준 21%(전년대비 26% 증가)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한국,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2. 냉동 청어: 중량 19%(전년대비 40% 증가), 금액 5%(전년대비 9% 증가). 주요 수출국은 중국, 한국, 나이지리아, 영국.
3. 명태 필렛: 중량 5%(전년대비 42 감소), 금액 7%(전년대비 48% 감소). 주요 수출국은 한국, 네덜란드, 독일. 중국은 수출량 측면에서 4위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대비 3.5배 증가하였다.

※ 출처: Rybnysoyuz, 2023년 8월 2일자

## 알래스카 명태 업계, 中 맥도날드 MSC 인증 환영

### 명태 가격에 긍정적 영향

맥도날드 차이나는 최근 자국 5,000여 개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필레 오 피쉬 샌드위치, 더블 피쉬 버거, 키즈 피쉬 필렛 버거에 해양관리협회의 회(MSC) 라벨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맥도날드는 10년 넘게 미국과 영국 매장에서 MSC 인증된 알래스카 명태를 제공해 왔다.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지 10년 만에 중국 내 MSC 인증 제품 수는 10개에서 약 300개로 늘어났으며, 2030년까지 이를 1,000개로 늘리는 것이

MSC의 목표이다.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이 계획이 회원사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2020년에 코넬대학교와 함께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 자연산 명태 어업의 MSC 인증으로 인해 가격이 3.4% 상승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7월 27일자



## 러, 中·아프리카로 수산물 수출 증대 노력

### 러시아산 수산물의 세계 시장 축소 원인

러시아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구의 주요 시장에서 러시아산 어패류의 수입이 금지된 이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러시아 어업 연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러시아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러시아 전체 수산물 수출의 53%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5대 수산물 수출 시장은 7월까지 총 수입량의 34%를 차지한 한국, 7%를 차지한 네덜란드, 1%를 차지한 일본과 독일을 포함한다.

냉동 명태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 물량이 23% 증가했으며 러시아 전체 수산물 수출의 44%를 차지하며 러시아 수산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냉동 청어와 활 게의 수출은 각각 40%와 19% 증가하였다. 명태 필렛 수출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러시아산 명태

필렛의 중국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러시아산 태평양 대구와 대서양 대구의 수출은 각각 17%와 3% 감소하였다.

러시아는 또한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글로벌 시장 축소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로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2023년까지 러시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수가 1/3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량은 약 5만 톤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어업 연합에 따르면 7월까지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량은 140만 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액은 12% 감소한 2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8월 2일 기준 러시아의 전체 수산물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20만 톤을 넘어섰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8월 7일자

## 러 명태 공급업체, 국내 소비 촉진 브랜드 캠페인 시작

### PCA, 새로운 '극동 명태' 브랜드 홍보

러시아명태협회(이하, PCA)는 향후 3년간 국내 명태 소비량을 35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 러시아 시장 극동 명태 브랜드 홍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캠페인, 특별 웹사이트 제작, 최신 레시피, 요리 동영상 등 명태에 대한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4년에는 소매 업체, 가공 업체, 케이터링 회사 등과 함께 일련의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룹은 밝혔다.

PCA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장에 대한 러시아 명태 공급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만 톤에 달할 수 있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8월 2일자



## 러, 청어 가격 급락

### 명태 가격은 유지

러시아에서 태평양 및 대서양 청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 이 인기 있는 생선의 도매가격은 각각 21%와 10% 하락하였다. 러연방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태평양 청어 라운드는 1kg 당 62 루블, 대서양 청어는 93 루블이다. 동시에 명태 필렛은 작년 수준인 1kg 당 205 루블을 유지하였다.

앞서 전 러시아 어업 생산자 협회(VARPE)는 러시아에서 붉은 생선이 더 저렴해졌다고 하였다. 핑크 연어의 가격은 좋은 어획량을 배경으로 하락하기 시

작했으며 현재 kg 당 230 루블 미만이다.

7월 러시아 어류 연합 분석 센터는 국내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비우호적인 국가"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생산자들은 이미 이전에 그러한 제품의 주요 물량을 대체했으며 시장은 눈에 띄는 변동 없이 나머지 부분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이나 제품 부족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

\* 출처: Lenta.Ru, 2023년 8월 7일자

## 러, 허가 수령자 규제 기관에 대해 불만 제기 가능

### 불만 발생시 문제 제기 서류 자동 생성

러시아 면허 분야에서 국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재판 전 항소 서비스가 주정부 서비스 웹사이트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항소 심사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면허 활동 분야에서 재판 전 항소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허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사전 재판 항소 서비스가 국가 서비스 포털에서 시작되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면허 및 허가 활동의 추가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불만 사항은 면허 결정 기관장 또는 대리인이

고려한다. 불만 사항을 고려하는 표준 기간은 불만 제기 이유에 따라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5일 간이다.

신청자는 면허 거부, 공공 서비스 제공 기한 미충족, 문서 발급 절차 위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국가 기관의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별도 버튼이 허가 취득을 위한 전자 절차에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신청서의 형태로 자동으로 표시된다.

\* 출처: FishNews, 2023년 8월 1일자



## 日 “가을 쯔치 어업, 공해 중심 어장 형성” 전망

### 日 근해 내유량, 전년도 비슷한 수준 예측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이하 수연구구)는 지난 7월 28일, 올해 8~12월 홋카이도 동쪽에서 조반(常磐, 이바라키현 히타치국~후쿠시마현 이와키국에 걸친 일본 동해안을 구성하는 지역) 수역에 걸친 구역의 쯔치 내유량에 대한 예측을 발표하였다.

수연구구는 어획량이 역대 최저치였던 전년도와 비슷한 ‘저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어획의 주체가 되는 1세어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많지만, 어장이 공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을의 근해 봉수망 어업 등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8월 이후 일본 근해로 내유하는 어군이 서식하는 180도 경선 이서(以西)의 자원량은 93만 8,000톤으로, 전년 자원량인 117만 3,000톤보다 적은 수준이다.

일본 근해에 가까운 동경 165도 이서의 자원량은 작년에 비해 특히 적으며, 어장 형성은 8월 쿠릴 열도 동쪽 공해(동경 160도 이서), 9월은 공해 및 북해도에서 형성되고, 쿠릴 열도 주변에서 소규모 어군 등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이후 어군은 더욱 서쪽으로 이동하지만, 일본 근해로의 내유는 오야시오(親潮) 해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야시오 해류의 흐름을 감안하면, 가을 이후에는 공해 중심의 어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연구구는 6~7월 시점에서 27cm 이상, 8월 이후 29cm 이상이 되는 1세어의 비율이 전년도의 22.9%에서 올해 30.5%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1세어의) 내유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어기 중 어획량에서 1세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년의 58.8%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세어 어체 무게의 경우, 2022년 조사 당시에는 80~90g이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90~100g대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내유 시기에는 110~120g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쯔치 어체의 소형화가 진행되는 추세이고, 큰 사이즈의 기준이 되는 160g에 비하면 120g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7월 31일자





## 日 냉동 콩치 2022년 수입량 7,400톤

2021년 대비 60% 증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콩치 수입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7,376톤으로, 대만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만은 자국 소비 외에도 일본, 러시아, 한국, 중국 등지에 콩치를 수출한다. 대만산의 2022년 평균 단가는 kg당 392 엔으로, 전년도부터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수출되는 콩치의 양은 2020년 2,850톤, 2021년 2,300톤이었으나 2022년 663톤으로 급감하였다. 중국, 태국, 러시아, 베트남 수출

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2년 수출 평균 단가는 kg당 430 엔으로 전년 대비 1.5배 상승하였다.

북태평양을 회유하는 콩치는 최근 수년간 자원 감소가 현저하다. 생산국은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 한국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자국 수역에 내유하는 어군을 어획하고, 상호 입어 또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은 어장이 대체로 공해에 형성되어, 근해에 적은 자원을 먼저 어획해야 하는 상황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7월 27일자



## 연해주, 8월 중순 콩치 조업 예정

정확한 날짜 미정

연해주 어업자는 조업이 허용된 9만 톤의 콩치 어획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원양어종(정어리, 고등어, 콩치) 어획량 예측에 따르면 콩치와 고등어의 자원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어리 자원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원양 어류 자원 수준에서 2023년 러시아 연방

배타적 경제 수역의 TAC는 정어리 48만 5,000톤, 고등어 25만 톤, 콩치 9만 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할린 회사 중 하나가 8월 중순에 콩치 조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출처: Fishnet, 2023년 7월 31일자





## 2023년 러 원양 어류 전망

### 정어리 어획량 우세

전 러시아 수산 해양학 연구소(이하, VNIRO)의 과학자들은 "정어리, 고등어, 꽁치 -2023"에 대한 원양 어류에 대해 예측하였다.

2023년 원양 어종(정어리, 고등어, 꽁치)의 예측은 VNIRO의 태평양 지부(이하, TINRO)에서 논의되었다.

"러 연근해에서 꽁치와 고등어의 자원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고 있지만 정어리 자원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예측은 꽁치 어업에서 현재 확인된 주요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TINRO의 수산 해양학 연구소 책임자는 말한다.

기존 원양 어류 자원 수준에서 2023년 러시아 연방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역의 권장 어획량(RC)은 정어리-48만 5,000톤, 고등어-25만톤, 꽁치-9만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2023년 대량 원양 어종에 대한 어업 개발 예상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고등어와 극동 정어리 : 5~6월에 고등어와 정어리는 넓은 해역에 분포했지만 소쿠릴 능선 남쪽의 러시아 연방 EEZ 경계 근처에서 상업적 군집을 형성하였다.

7월에는 고등어와 정어리가 더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이 어종은 북부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 물고기의 안정적인 군집은 이미 7월 말에 오흐츠크해 남부에서 관찰되었다.

정어리는 원양 어기에 지속적으로 어획량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여름과 가을에 적당 정어리 어획량이 많을 것이다. 표층수의 느린 냉각과 정어리 집단의 광범위한 분포로 인해 북서태평양에서 늦겨울 회유가 예상되며, 정어리 집단은 12월까지 러시아 EEZ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꽁치: 5~6월에는 북서태평양 북극 수역에서 꽁치 조업이 이루어졌지만, 올해에는 이 기간 동안 러시아 선박은 조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7~8월에는 꽁치 떼가 점차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쿠로시오의 세 번째 지점을 따라 더 멀리 이동한다. 대부분의 성숙한 꽁치는 북서쪽으로 북 쿠릴 지역으로 이동하여 8~9월에 군집을 형성한다.

쿠릴열도 중앙에서는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쿠릴 해류를 따라 꽁치 군집이 형성될 것이다.

\* 출처: TINRO, 2023년 7월 27일자





## FMI “수산물, 美 소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

###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전망

인플레이션과 기타 경제적 역풍이 미국 식료품 업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산물은 시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식품산업협회(FMI)의 임원들은 말한다.

7월 12일 FMI 임원들은 3만 9,000개 매장을 대표하는 100개 식품 소매 및 도매업체의 설문조사 응답이 포함된 이 단체의 새 보고서 '식품 소매업이 말하는 2023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인플레이션은 13.5%로 정점을 찍었던 작년 8월 이후 크게 하락했지만 소매업체, 공급업체, 소비자는 작년의 인플레이션 및 경제 압박의 영향을 계속 느끼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식료품 소매업체들은 2022년 매출이 평균 4.9% 증가했다고 답했지만, 이는 주로 물량 증가가 아닌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FMI 회장이

은 말하였다.

회장은 "많은 업체들이 가능한 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인상의 영향을 협상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새로운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전체 식품 인플레이션은 5.7% 상승하였다. 가정 식품 가격은 2022년 6월에 비해 한 달 동안 4.7% 상승했지만, 이는 5월의 5.8% 상승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에 외식 물가는 7.7퍼센트 상승하였다.

미 농무부의 식품 가격 전망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소매 식품 인플레이션이 5.9% 상승하고 레스토랑 인플레이션이 7.9%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회장은 언급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7월 14일자

## 中 당국, 日 오염수 수입 규제 강화 시사

### “필요한 모든 조치 실행” 의사 표명

중국 세관에 해당하는 해관총서는 7월 7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식품에 대하여 “높은 경계를 유지하여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표하였다. 오염수 방출이 실시될 경우, 수입 규제 강화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해관총서장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후쿠시마, 미야기 등 일본의 10

개 지정 도-현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일본 기타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 특히 식용 수생 생물을 포함한 수산물에 대한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방사성 물질 검출 및 측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7월 14일자



## Europeche, 국제 해운 순배출량 제로 기준 재고 요구 선박 수소 저장 공간 등 문제

7월 초 런던에서 개최된 UN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회의에서, 국제 해운 부문은 2050년경 기후 중립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7월 3~7일간 소집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27년 초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연료세 등에 대한 합의를 타결시켜야 한다. 이 계획은 배출량을 2008년 기준 수준에서 최소 20% 감축하고, 2023년까지 30%, 2040년까지 최소 70%(목표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은 더욱 강경한 감축 수준을 요구하였다.

IMO 협약은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국제 해상을 횡단하는 벌크선 등의 국제 운송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결국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를 외면할 수 없는 참치 어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이 필연적이다.

EU 어업 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인 Europeche는 이에 대하여 좀 더 현실적인 타임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박에 수소를 저장하려면 디젤이나 해상가스에 비해 4배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나, 선박 총 톤수에 대한 EU의 제한으로 인하여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Europeche는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평균 선령이 31.5년이나 되어 개조하기 어려운 노후화 선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EU 수산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EU 투자은행이나 신규 수산기금 등 다른 재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11일자

## EU-모로코 어업 협정 만료

### 스페인 트롤 어선들이 피해

7월 17일부터 유럽 트롤 어선들은 어업 협정이 종료되어 더 이상 모로코 연안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되며, 모로코는 더 유리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 갱신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트롤 어선들은 모로코 연안에서 정어리, 참치, 멸치를 잡으며 그 대가로 지난 4년간 모로코에 총 2

억 8백만 유로를 지불하였다.

EU 회원국 중에서 스페인은 어업 협정이 만료되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모로코 해역에서 조업하는 128척의 EU 트롤 어선 대부분이 스페인 국적이기 때문이다.

\* 출처: Mercopress, 2023년 7월 17일자



## 러 업계, 선박 건조 능력 부족 우려

### 쿼터 경매 요건 미충족 우려...105척 주문 중 14척 건조

러시아가 2023년에 두 번째 투자 쿼터 경매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러시아 조선업체들은 이미 생산 능력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새로운 어선과 가공 공장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7년에 처음으로 투자 쿼터를 시작하였다.

쿼터는 러시아 내에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배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조선소는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고, 신조 선박의 적시 인도와 연계된 할당량으로 인해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위협에 처하였다. 2023년 2월까지 주문된 64척의 어선과 41척의 게잡이 선박 중 14척만이 회사에 인도되었다.

새로운 투자 쿼터는 상당한 추가 현지화 요건을 갖춘 포인트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업체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어업회사 이사회 위원 스타니슬라프 악세노프는 러시아 함대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의 상당수가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조선 및 해양 엔지니어링부의 이리나 오르니체바 부국장은 무역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지화 요건이 2023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옹호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7월 19일자

## 러, '비우호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 EU·英·美 등 대상, 日 제외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지난 25일, 유럽과 아메리카 등지의 '비우호국'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하였다. 금지령을 정한 공포일로부터 7일 후에 발효되며, 2023년 말까지 유효하다.

이번 금수 조치의 대상 국가 및 지역은 EU, 미국,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다. 일본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러시아 수산 단체인 VARPE에 따르면, 금

수 대상 품목은 수산물 조제품(통조림, 캐비어, 갑각류, 연체동물 등 HS코드 1604, 1605) 한정으로 2021년 해당 품목의 수입량은 2,317톤에 불과한 수준이다.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금수 조치가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 및 이를 지지한 노르웨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7월 27일자



## 최신 연구 “일부 국가가 대부분의 전재 담당”

### 모니터링 및 규제 확대 필요성 제기

최근 퓨 자선 신탁이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국가에 국적을 둔 130척의 운반선 그룹이 전 세계 전재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립대학교의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에서 4월 19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에 기록된 12,322건의 전재를 연구한 결과, 약 600척의 운반선 중 130척이 대부분의 전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선박 중 대부분은 대만, 라이베리아, 파나마 또는 중국의 국기를 달고 있었으며, 전재의 24%는 파나마와 중국의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었다.

퓨 자선 트러스트 국제 어업 매니저 제이미 기번은 "국가는 항상 자국 국기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한 국기를 사용하는 운

반선이 증가하거나 한 국기를 사용하는 어선이 다른 국가의 선박과 전재하는 추세가 증가한다면 모니터링과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어획량 허위 보고 또는 미보고, 노동자의 권리 침해, 인신매매, 무기 및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의 위험은 전재를 통해 증가하며, 특히 모니터링 및 규제 통제 조치가 미흡한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종종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며, 종종 탐지를 피하기 위해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인접하여 모여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를 사용한 이 연구는 RFMO가 관리하는 7개 지역에서 발생한 전재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7월 28일자

## MSC “북동 대서양 온난화가 주요 어족 자원에 악영향”

### 어자원 효과적 모니터링 및 관리 위해 협력 필요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난화와 더불어 북대서양의 기록적인 해양 폭염이 이미 남획되는 북동대서양 원양어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MSC는 고등어, 아틀란토-스칸디나비아 청어, 청새치가 모두 건강한 개체군을 번식하고 유지하

기 위해 더 차가운 물에 의존하므로 온난화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온난화로 인해 이들 어종이 더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공유 어족자원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7월 25일자



## 日, 2022년도 식량자급률 발표

### 식용 수산물 49%로 하락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7일, 2022년도 식품 자급률을 발표하였다.

열량 기준 자급률은 전년도와 같은 38%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엔화 약세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상 최저치인 58%를 기록하였다.

어패류 자급률은 열량 기준으로 4%p 하락한 54%이며, 이 중 식용의 자급률은 3%p 하락한 56%이다.

해조류 자급률은 1%p 하락한 67%이다.

식용 어패류 자급률 하락은 고등어, 가다랑어 등의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연어, 멸치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이를 보충할 수준은 되지 못하였다.

농림수산업성은 자급률 상승을 위하여 2022년 3월 수산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정한 대로 소비 감소를 멈추는 동시에 새로운 자원관리 및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8월 8일자

### 수산물 자급률(중량 기준) 추이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추산)
어패류(식용)	59	56	56	59	55	59	56
어패류(전체)	55	53	52	55	53	58	54
해조류	70	69	59	68	65	68	67

## 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위험성 평가

### 해류와 지리적 요인으로 안전

러시아 극동 지역 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이 태평양으로 방류되어도 위험하지 않다. 이는 가장 가까운 해류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 수자원 및 환경 문제 연구소의 과학 작업 책임자 알렉세이 마키노프가 말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러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위

험이 없는 것은 북반구의 해류가 러시아가 위치한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편향된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유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태평양으로 유입된 오염수조차 극동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

\* 출처: Lenta.Ru, 2023년 8월 7일자



# 바다

임 영 석

파도가 쳐야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사람이 흘려보낸 오욕(五慾)을 씻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 제 가슴을 때렸으면  
 저렇게 퍼런 멍이 들었겠는가

자식이 어미 속을 썩이면  
 그 어미가 참고 흘리는 눈물처럼  
 바다도 얼마나 많은 세월, 눈물을 흘렸으면  
 소금빨이 서도록 짜다는 말인가

그 퍼런 가슴, 짙은 눈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  
 또 얼마나 많은 세월, 마음을 비워왔으면  
 두 눈 뜬 몸을 자르는데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도록  
 바다는 물고기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 7월 오징어 국내 동향

### 서해안 어황 호조로 생산 증가

□ **생산동향**(7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12% 증가한 9,55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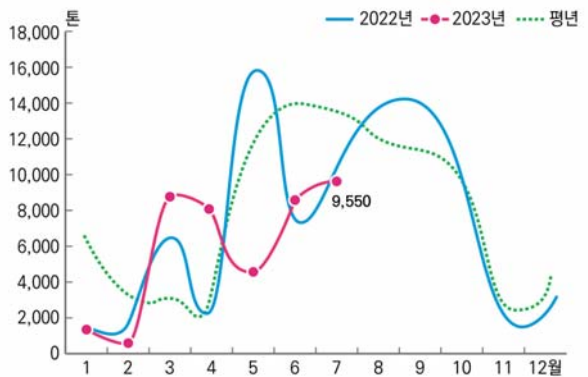
7월 오징어 생산량은 9,550톤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12.3%, 26.9% 적었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3,699톤으로 전월 대비 93.7% 증가했으나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0%, 40.0% 적었다.

동해 및 서해에서 어장이 형성되었는데 동해의 어황은 전년 대비 부진했으나 서해에서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권역별로는 남해안지역 1,755톤, 서해안지역 1,272톤, 동해안지역 617톤 등의 위판실적이 있었다.

원양산 반입량은 5,851톤으로 전월 대비 11.8%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14.3%, 15.2%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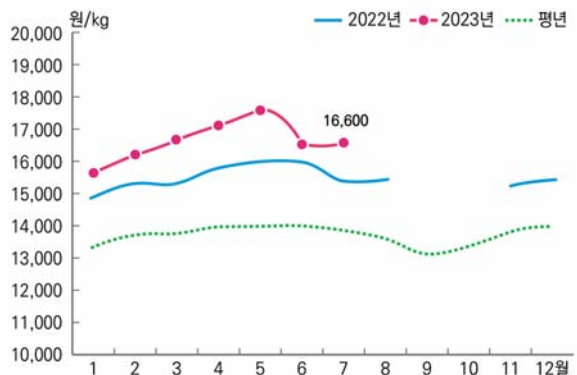
□ **가격동향**(7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1만 6,563원)

7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6,545원으로 전월 대비 113.2% 상승했음. 이는 최근 저인망어업 등의 오징어 어획 비중이 늘면서 오징어를 대상으로 한 품질 관리가 원활하여 전월 대비 품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전월과 마찬가지로 기준 크기 이상의 오징어 유통물량이 적어 신선냉장품의 도매 및 소비자가격은 형성되지 않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만 1,221원으로 전월 대비 2.1% 하락했다.

소비자가격은 kg당 1만 6,600원으로 전월과 비슷했으나 작년 및 평년 대비 높았다.







## □ 수출입동향(7월 오징어 수출량 전월대비 늘고 수입량 감소)

7월 오징어 수출량은 1,328톤으로 전월 대비 13.9% 증가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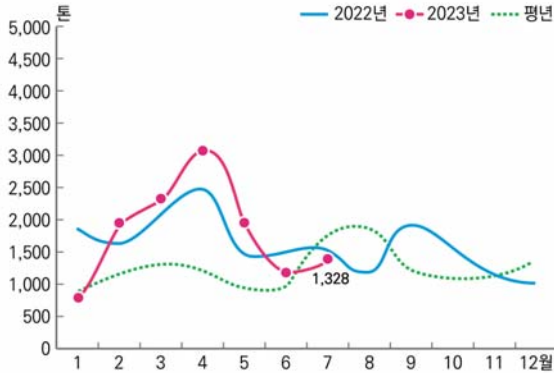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699톤)과 미국(403톤)으로의 수출량이 대부분이었으며, 중국으로는 냉동오징어, 미국으로는 ‘오징어 기타’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았다.

7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25.0% 감소한 2만 2,432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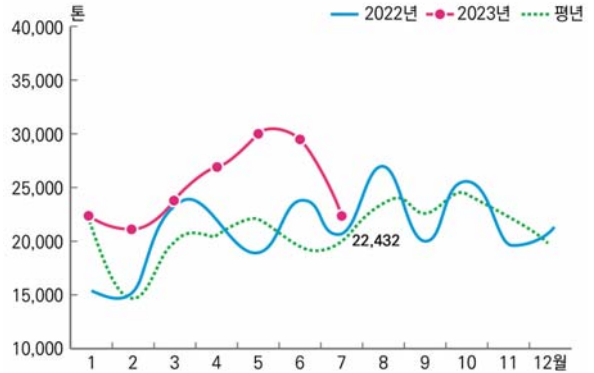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67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7,308톤, 칠레산 2,327톤 등의 순이었다.

페루산은 주로 ‘기타’, 중국산은 냉동 및 기타, 칠레산은 냉동제품 비중이 높았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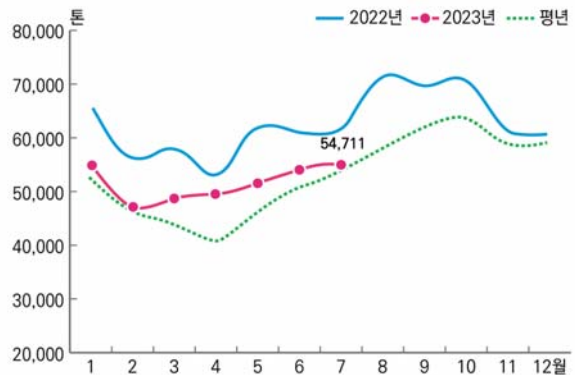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 재고동향(7 오징어 재고량, 전월과 비슷한 5만 4,711톤)

7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5만 4,711톤으로 전월과 비슷했다. 이는 생산 증가에도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8월에도 서해 중심의 연근해 조업은 활발하고 원양산 반입은 줄 것으로 보여 재고량은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KMI 수산물측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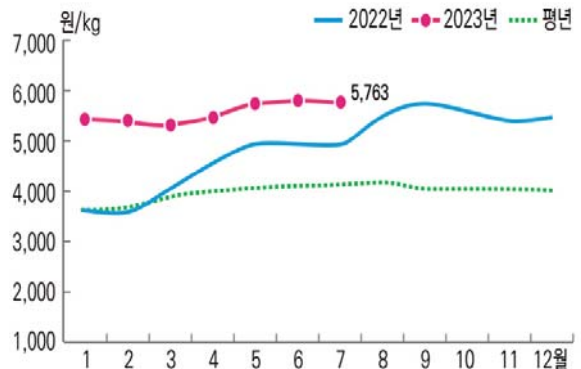
## 7월 명태 국내 동향

2023년산 원양명태 반입 시작, 반입량 3,074톤

□ **가격동향**(7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5,763원으로 전월 대비 약보합세)

7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명태 B시즌 물량이 수입 및 반입되며 전월보다 1.9% 하락한 kg당 2,522원이었음.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8.7% 낮았으나 평년 동기 대비 13.1%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kg당 5,763원이었으며,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17.2%, 40.6%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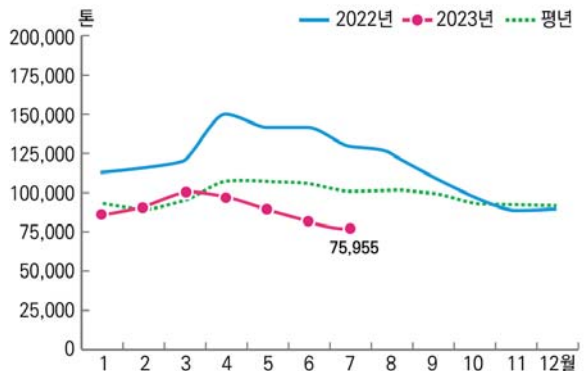


□ **재고동향**(7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7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7만 5,955톤으로 전월 (82,547톤)보다 8.0% 감소했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41.2%, 24.9% 적었음  
7월부터 B시즌 명태 반입 및 수입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물량이 적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명태 B시즌 어획물이 반입 및 수입되면서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입동향(7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33% 감소한 2만 1,263톤)

7월 명태 수출량은 1,248톤으로 전월(6,149톤)에 비해 79.7% 감소했으며,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95.3%, 85.5%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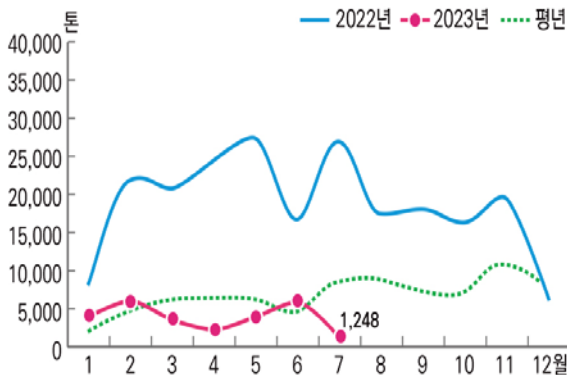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중국으로 냉동필렛(218톤), 베트남으로 냉동명태(192톤), 중국으로 냉동명태(109톤) 등의 순이었다.

명태 수입량은 2만 1,263톤으로 미국산 가공품 수입이 줄어 전월(31,480톤) 대비 32.5%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재수출이 많았던 작년과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50.9%, 22.5%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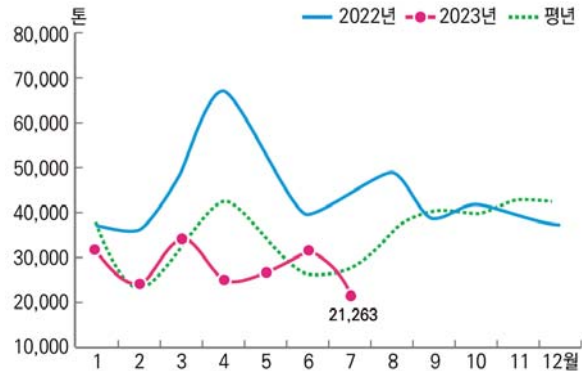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산 냉동명태(6,053톤), 미국산 냉동연육(5,342톤), 러시아산 냉동필렛(5,135톤)과 건조명태(2,664톤) 등의 순이었다.

7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9만 3,599톤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80.7%, 30.2%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물측 8월호



## IMO,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역량 강화 사업협정 체결 아세안·태평양 도서국가의 해상안전·해양환경 분야 역량 강화 기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7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 런던 현지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제 129차 이사회’ 기간에 국제해사기구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협정을 체결하고, 해양모빌리티 국제 심포지엄 행사도 개최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협정서는 지난 4월 해양수산부가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가의 해상안전·해양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에 공여한 약 50억 원의 예산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기간 및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필리핀, 베트남, 통가 등 20여 개국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 탈탄소, 해양디지털화 등 5종류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2023년 약 50억 원을 포함하여 2023~2027년간 총 2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예정

이어서, 7월 18일(화)에는 ‘해사분야 혁신을 위한 첨

단 해양모빌리티’라는 주제로 국제해사기구 본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최근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상호 연계, 융·복합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아우를 만한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가 ‘해양모빌리티\*(Maritime Mobility)’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 친환경·디지털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사람·재화를 이동(수송) 시키는 수단(선박 등)과 관련 서비스(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디지털 해상교통 등)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의 세계적인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해사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기술 전수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대리)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 장	589-1604	총 괄 총무, 자금 서무관리, 차량운영
		공길웅 과 장	589-1605	
		조성환 과 장	589-1606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 사	589-1603	총괄(겸직) 기획, 홍보 원양뉴스, 생산통계
		조성주 과 장	589-1608	
		김민재 주 임	589-1609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 장	589-1610	총 괄 무역제도, 수출통계 노사, 선원
		김영수 과 장	589-1611	
		최은혁 주 임	589-1619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 무	589-1602	총괄(겸직) 국제협력 참치선망 참치연승
		최봉준 과 장	589-1613	
		백상진 주 임	589-1614	
	해외협력2부	정윤경 사 원	589-1615	총 괄 오징어, 기타트롤 복양, 품치
		진호정 부 장	589-1616	
		최상진 주 임	589-1617	
부산지부	부산지부	이성재 이 사	051-253-3388	총 괄 확인업무(수출,반입)
		김현애 과 장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 장	051-253-3391	차량계량 차량계량
최광준 팀 장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 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 장	044-868-7834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해외진출팀	이 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통계, OFIS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3	일본/지역수산물기구

■ 홈페이지: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02-589-1630/1, (부산지부):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044-868-7840

## 명에해양수산물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수산물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수산물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	64-3-344-1617 seajho@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창원 자문위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자문위원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9호

발행: 2023년 7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간별: 월간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홍조림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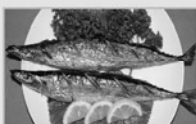
##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